

통권 제 37호

강아지 똥

2003
5.6월호



전 경 숙 님께 드립니다.

퍼낸어 : 박은아 / 퍼낸곳 : 한국보육교사회인천지부

(032) 529-0215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577-3

홈페이지 <http://www.kdta.or.kr>

글 차 례

♣ 기획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의견서

정책팀

♣ 한국보육교사회 뉴스

민간보육시설까지 정부지원 확대
보육교사 환경, 보수체계 개선

♣ 현장에서 온 편지

보육교사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날

박윤정

이숙희

♣ 인물탐방

류신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은미

♣ 육아일기

윤호동생과의 만남

이성수

♣ 인천지부 소식

인천지부 소식
소모임사랑방
어린이집 소식

♣ 보육교사회.com

어린이집 사이버 중계 동의하십니까?

♣ 콩당콩당 토크방

기획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의견서

- 보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소모적 찬반논쟁을 중단시키고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즉각 추진하길. -

지금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출산을 하락으로 예상되는 아동수의 감소는 아동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 사회 성원으로서의 아동의 양육문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양육의 지원서비스인 보육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사업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육은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시기 보육문제를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부예산과 지원의 부족,
- 2) 민간주도의 보육현실에서 정부의 관리감독미흡으로 인한 보육의 질적 문제 야기,
- 3) 수요자인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의 부재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① 적극적인 정부의 해결의지와 ② 필요한 예산의 확보, ③ 보육현장과의 협력적 관계구축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논의되어 온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한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한부모 가정의 증가)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아동의 양육환경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정책으로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

그동안 보육을 담당해 온 보건복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은 아직 많은 난제를 남겨놓고 있다. 이는 보육이 여성노동정책, 다양화되는 가족문제 등과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과 사회복지영역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속에서 보육이 우선순위로 고민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합리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직장가정의 양립이라는 주요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부가 '보육', '보육과 관련된 양육정책'의 집행부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보육현장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계기로 보육사업이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를 담아내고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이 분명하게 자리매김 할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동안 보육업무 부서이관을 둘러싸고 각 단체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때로는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관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욕구를 존중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부서이관에 대한 소모적인 찬반논쟁이 아니라 보육의 발전을 위해 여성부로의 이관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

2003년 6월 4일

한국보육교사협회

민간보육시설까지 정부지원 확대 보육교사 환경, 보수체계 개선

여성부의 보육 마스터플랜 기본 틀이 나왔다.

지난 16일 만난 여성부 김애량 여성정책실장은 "정부조직법이 일단 통과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담당 부서인 복지부가 2004년 예산을 기획하고 있어 말하기 어렵지만 안이 좋으면 당연히 함께 하는 것이고, 첨부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면 된다"며 보육과 관련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밝혔다.

보육마스터플랜의 중심 내용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을 가족정책의 큰 틀로 접근하는 것이다. 공공성 확보를 들여다보면, 시설뿐 아니라 '아동 중심'의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차등보육제를 도입해 적용할 계획이다. 가족정책과 연결해서는 보육이 단순히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가족관계, 민주적 가족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근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김실장은 "평등한 가족관계를 철학으로 하는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일부 보육과 여성문제를 별개로 두고 여성부가 여성취업을 위한 보육을 하려고 한다지만 이는 위험한 사고다"고 밝혔다.

보육시설 지원체계는 지금까지 국공립 시설 위주로만 지원했던 것을 민간 보육시설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조건 지원이 아닌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법인으로 육성하거나 공공보육 시설로써 적합한 기준이 됐을 때 한다. 김실장은 "민간보육시설이 먼저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가능성이 보이고, 보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육교사 환경은 당장 예산소요가 높기 때문에 한번에 이루기 보다 근무환

경계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한다. 그 예로 장기 교사연수가 있을 때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확보, 호봉제, 경력인정 등 보수 체계 개선 등을 말한다. "교사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 재교육에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며 "교사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성부는 현장 및 학계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보육발전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마스터플랜 제시 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마스터플랜이라 해도 김실장이 전제한 것처럼 우선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현행 "제42조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 영육아교육에 관한"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실장은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확고한 입장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낙관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조직법을 논의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입장을 보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아무리 국무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하지만 대부분 행자위 소속 의원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그나마 여성관련 정책에 관심 있는 몇몇 의원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지난 1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6월 중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지은희 장관의 의지를 실현시키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출처: 여성신문 728호 2003-05-23)

통

보육교사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윤정(코알라 · 인천생협예술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코알라예요,
예술 어린이집으로 인연을 맺게 되어 드디어 보육교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석달 전의 일이지만 처음으로 보육교사회를 가던 날이 생각나네요. 예술 선생님과 세쌍둥이 어린이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줄지에 '낙동강 오리알'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류지민 선생님의 힘찬 악수(실은요 굉장히 아팠어요^^;)와 함께 모두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 드렸어요.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전부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가족처럼 편안한 거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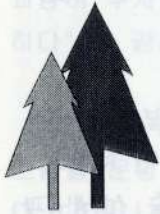
보육교사회 일원이 되니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우선 같은 교사들끼리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기의 꽃도 피울 수 있고요, 다른 계통의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또, 그동안 많이 궁금했던 것에 대한 갈증도 풀려서 좋았어요. 그리고 소모임을 통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니뭐니 해도 전체모임때 교육 후 뒷풀이 시간에 맛있는 음식(진짜 맛있어요!!)도 빼놓을 수 없겠죠!! 보육교사회 모임을 세 번 정도 가졌는데 횟수가 늘어날 수록 정이 드네요. 뒤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라도 보육교사회 일원으로 높은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보렵니다.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보육교사회와 좋은 인연을 맺고 싶고, 보육교사회의 무궁무진한 번창을 바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생님들의 예쁜 마음 고이고이 간직하세요.

통

어느 날

이숙희(나무 · 유아국악강사)



마당에 다닥다닥 열린 구기자를 따습니다.
따도 따도 그 옆에 또 그 옆에 많기도 합니다. 벌레도 참 많
습니다. 구기자 열매를 먹는 무당벌레처럼 생긴 것과 잎을 먹
는 기어 다니는 벌레, 고슴도치를 축소해놓은 듯한 손톱보다도
작은 벌레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벌레가 먹는 것보다 나 혼자 따는 구기자가
더 많으니 나는 참 욕심쟁이입니다. 그 중 통통한 구기자를 열린 따며 벌레
를 놀립니다.

"내가 먼저 가져간다."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구기자를 따다가 요가 시간에 늦었습니다.
서둘러 버스정류장까지는 왔지만 아무리 여러 방법을 찾아도 가 뵈자 많이
늦을 것입니다. 구기자를 조금 덜 따야 했는데, 다음에 또 따도 되는 것인
데, 내 욕심은 언제나 멈추질 않아.... 요가를 포기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기자를 씻어 채에 받치고 바늘에 실을 꿰어 구기자를 하나 하나 바느질
해 길게 매달아 말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구기자를 따는 것, 말리는 것이
비교적 사람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허나, 잎 피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
기까지, 알맞게 비 내리고 알맞게 햇빛 주고 바람 공기 흙- 흙이 되어진 오
랜 세월의 등, 식물에 비하면 거저 먹는 것이겠지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음식을 하지만, 밥, 반찬을 할 때 귀찮으면 이런 생
각을 합니다.

'이 쌀이, 이 호박이 나에게 오기까지 햇빛이 바람이 흙이 공기가 비가 여러

생물들이 농부들이 상인들이 내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해 주는 것이 얼마데,
내가 먹기 위해 요것도 귀찮아하나? 너 참 엄치도 없다.'
그러면 옆에 떨어진 쌀 한 알도 줍게 됩니다.

밥을 하고 먹을 때면 가끔, 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밥 먹기 전 농부와
밥을 해주신 분께, 즉 사람에게 고마움을 말하고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진정 수고한 것이, 고마운 것이 자연임을 아이들에게 말 못한 것이 큰
아쉬움입니다.

이따금 내 집을 둘러봅니다.

집, 텔레비전, 비디오, 침대, 장, 식탁, 옷들, 그릇, 전화기, 책, 상, 가방.....
나 하나를 위해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 몇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을까? 결국은 쓰레기로 묻혀질 이 많은 물건들. 매일 매일 나로 인해
생겨나는 쓰레기들과 집안의 물건들을 보며 이 땅 한 구석을 망가뜨릴 쓰레
기장이 그려지며 마음이 무겁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살 때면 많
이 망설입니다. '정말 내게 꼭 필요한가?' 묻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국 내 물
건은 늘어만 갑니다. 공짜라면 거절 못하는 내 욕심이 보태어저서요.

반년쯤 전부터 비닐을 접어 가방 속에 넣고 다닙니다. 집에 쌓여 가는 비닐
이라도 줄여볼까 해서요. 물건을 살 때면 미리 손에 준비했다가 잼싸게 비닐
을 벌리며 '여기 넣어 주세요,' 합니다.

1초만 늦어도 가게 주인은 새 비닐에 물건을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한지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집에는 비닐이 많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느라 비닐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래저래 또 새 비닐을 들고 오게 됩니다.

아주 가끔씩 자연에 감사하고 내 욕심을 걱정하고 내가 만드는 쓰레기를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조금씩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나에게 바라는 나의 바
램입니다.

종

섹시한 그녀

류신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은미(유아국악강사)

항상 매력이 뽐치는 목소리에 시원한 눈매를 가진 생협예술어린이집교사 돌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조곤조곤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목소리가 유난히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던데 천성인가요?

혹은 노력인가요?

노력이예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허가 길어서 발음이 꼬일 때가 있어 신경 써서 말을 하려고 그렇게 되었어요.

☞ 교사로서 부모가 당황스럽게 할 때는?

1. 수업시간에 찾아올 때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도 안되고 산만해져요. 남은 아이들도 가는 아이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2. 어린이집에서는 잘 하는데 각자의 집에서 다른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3. 전체 청소때 부모참여가 적으면 참여하신 부모님들께 너무 미안해요. (돌리는 천사표!)

☞ 좋아하는 남성상은?

편하고 된사람!! 난사람 말고 특히 인간적으로 여유 있고 편안한 사람. (주위를 둘러보고 있으면 꼭 다리 놓아주세요~)

☞ 자신이 섹시하다고 느낄 때?

목욕을 마친 후 드레스 비슷한 잠옷을 입고 거울을 볼 때... (잠옷이 원형이라 굴곡을 가려줘요~)

☞ 연애 경험은 있는지? 아니면 짝사랑은?

학생때 연애를 했었는데 별로 감정이 없어서 헤어졌어요. 짝사랑은 안 해봤어요..

☞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회의할 때는?

왜 이렇게 까지는 아닌데 차분하지 못하고 당황을 잘하는 편이라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꼼꼼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결혼하고 싶을 때는?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

☞ 취미는 무엇인가요?

사람 만나 수다떨고 여행 다니기! 요즘은 중고등 동창인 친구와 잘 여행 다니고 있어요. 잘 싸우고 금방 풀어지고 눈빛으로 서로 이해하는 나의 참한 여자친구죠.

☞ 아주아주 따분할 때 하는 일은?

책보기. 손에 잡히는 책은 뭐든지 다 읽어요. 집안에 책이 많은데 아직 안 본 책이 많아요.

☞ 목욕할 때 맨 처음 어디부터 하세요?

머리감고 트리트먼트하면서 샤워 15분 정도....(별걸 다 물어봐...>.<)

☞ 10년 뒤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 친구와 특별하지 않고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겠죠.

☞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관심은 있으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좋은지 모르겠어요. 보육교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려 했지만 아직은 어렵네요.

☞ 스트레스 해소법은?

노래방에서 노래하기, 잠자기, 새벽 3시까지 멍하니 있기. 힘들 때 정신은 멀쩡한데 잠은 안 오고 하는 일은 없고 시계 보면 새벽 3시.. 꼭 후회해요..

☞ 어렸을 적 가끔 떠오르는 좋은 추억은?

동네가 작아서 우리 또래만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같이 놀았어요. 슈퍼를 운영하던 집 앞이 흰해서 집 앞에 모여 숨박꼭질하던 때, 짝 더미 뒤돌에 숨었던 기억들..

☞ 지금 배우고 있는 품물은 어떤지?

재미있어요. 그런데 많이 못 따라가요.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긴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 보육교사회에 한 마디?

좀 더 기분 좋게 했으면 싶어요. 전체적으로 회원들간의 거리감이 조금씩 보여요. 편안한 모임이 되기를...

편안하고 서로 친한 보육교사가 됩시다!

돌리에게 애인을 만들어 줍시다!

무료 여행권이 있으면 선물합시다!

똥



윤호동생과의 만남

이성수(윤지아빠)

/이연순 쌤과 밤에 손잡고 자는 남자



일기와 영어공부 싫어서 학교도 중퇴했던 나에게 왜 육아 일기(?)

고생한 아내와 지미니 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두세 달의 기억을 쫓아가며, 우리집에 윤지가 새로운 주인으로 결합하는 나날의 일기이다.

어느 날 아내(은하수 쌤)가 출산준비부부교실에 참석하라고 한다. 그것도 주1회씩 4회교육(매주 토요일)을 하라고 한다. 어머니까지 가세하셔서 어머니가 조산원(부천의 열린가족조산원)을 알선까지 하셨단다. 아직도 마마보이인 나로서는 아내의 짱구(지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지만 작년에 조카의 출산도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으로 낳았다는 말과 어머니의 적극적인 주선이었다는 말에 순순히 동의 할 수밖에 없었다.

4주간 모든 약속을 잡지 않고(특별한 약속도 없지만) 1주차 교육을 위하여 트럭으로 임산부와 함께 부천에 있는 열린가족조산원으로 GDI. '병원 은 실려 가기 전까지는 안 간다' 는 신조였는데 아내의 배를 보고서는 산부인과, 조산원을 명령만 떨어지면 직행하게 되는 내 모습에 상당히 신기해 보였다. 3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어있어 임산부에게 신경을 쓴 것 같다. 신청서를 쓰고, 교육실에 입장하니 넓은 거실형태의 교육장은 카페트로 모든 바닥을 덮어놓고, 보일러는 상당히 더운 상태였다. 임산부를 위하여 배려하는 조산원의 자세가 한층 마음을 놓이게 한다.

1주차의 교육은 태교란? 으로 시작하여 임신중 변화와 관리, 임신중 영양, 끝으로 체조로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숙제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야기할 말을 적어오란다. 교실은 덥고 믿어지지 않았던 임산부의 여러 가지 변화를 모자란 메모리에 넣으려하니 진땀을 뺐다.

2주차가 되어서 교실에 들어서니 숙제도 안해 왔고, 호흡 익히기와 안마와 마사지도 이제야 생각이 나게 되었다. 교육은 출산의 생리, 호흡/이완법의 실습과 체조로 마무리를 하였다.

3주차는 임산부의 힘주기와 남편의 역할, 모유수유, 출산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시청, 언제나 마무리 체조이다.

교육의 마무리 4주차는 산후 조리, 신생아 키우기, 뒤통이(교육생중 남편들이 두손에 무겁게 가지고온 음식물-그 동안 관행?)로 이어졌다. 체조는 언제나 진행되었지요.

이론과 실재는 차이가 많은가 보다. 많이 배우기는 하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까마귀고기를 매일 먹나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고 출산 연습(호흡/이완법)은 진행되지 않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출산일 전날까지도 쉼쉼하던 아내가 출산일 아침 5시에 깨운다. 더 자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산모이니까!' 하며 일어나 이것저것 물어보고 6시가 되어서 조산원으로 갔다. 조산원으로 출발-의심반 내심반-하여 진단도 받고 몸의 상태를 살피던 원장 쌤이 '곧 나올 것 같다.' 하였다. 분만실로 자리를 옮기고, 자세를 잡은 지 30분 자궁의 열린 길이가 변할 때마다 알려주는데 귀에 들리지는 않고 걱정은 아내에게 몽땅 쏘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내 모습이 우습게도 느껴졌다. 30분 정도가 지나니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원장 쌤과 아내 그리고 나, 세 사람이 출산과 임신 등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며 1시간정도 지냈다. 도착한지 1시간을 약간 넘기고 조산사도 함께 하며 본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출산을 맞이해 보지만 힘쓰기 어려운 아내나 두다리당기기(아내를 가슴에 안고)로 나의 팔은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힘쓰기 25분 정도 지나자 아이의 머리가 나오고 몸이 빠져나오는 데도 10여분이 흘렀다. 머리만 나오면 몸이 나오는데 쉽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당황되었다. 아기가 나오고 탯줄을 자르라고 한다. 연습은 하지 않았지만 쉽게 가위질을 하고, 원장 쌤과 조산사가 뒷정리를 하는 동안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몇 분간, 아내는 '고맙다' 는 말뿐이다. 2주차에 써먹기로 한 준비된 내용은 그때뿐이었다.

많은 상념과 추억이 머릿속에 맴돌지만 마음은 늘 아내에게 '사랑과 미안함' 만 남는다.

인천지부 소식

- ◆ 5/12 사회복지위원회 제 5차 실행 위원회의에 박은아 지부장 참석
인천의 각 단체 모임을 통해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매월 첫째주 월요일 7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 ◆ 포괄적 보육서비스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워크숍 프로젝트 사업
인천은 9/19-20일 입니다.
홈페이지는 우.리.네.아.이.들.(www.icarenet.kdta.or.kr)입니다.
- ◆ 4/1 회원의 날이였습니다.
- 강의 : 노조에 관하여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장)
- ◆ 5/17 스승의 날 자축연을 했습니다.
휴직중인 위준임, 손수정 선생님도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보육교사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주제로 자기 발표의 시간도 갖고, 예술의
미당에서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시원한 수박이랑 재잘재잘 수다랑..
준비해주신 예술의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여름연수입니다.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 자리 찾기> 라는 주제로 이윤경 강사님이 강
의를 해주십니다. 7/12 (토) 오후 2시-5시 북구 도서관 평생교육1실
입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생활예술어린이집

- ◆ 정책 연구팀은 몇차례 간단한 미팅 끝에,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정책
연구팀 1차 회의를 소집했어요.
정책팀원은, 이순, 김원희, 이인희(팀장)이고, 이상미 샘은 어린이집에 복
귀할 시점인 하반기(7월?)에 결함하기로 했습니다.
정기 모임은 매달 마지막 월요일 7시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기획글을 돌아
가면서 쓰기로 했으며, 다음 모임에서는 보육판(?) 돌아가는 것에 대
해... 인천지역 현황에 대해 인천보육조례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공유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지요.
정책연구팀이... 팀장이 의욕상실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시작이 반이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드려요~, 회원 여러분~운!
- ◆ 새내기 회원입니다!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미소가 매력인 고경애 선생님입니다!
세쌍둥이 어린이집 영아반에서 근무 하십니다. 영아교육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가득한 뽀뽀 선생님~ 반갑습니다!!
- ◆ 생일 축하 합니다!
-돌아온 우리의 공주 이경미 선생님(하늘)이 5월26일(음4.26) 생일이었습
니다. 늦었지만 축하해 주세요!
-귀염둥이 류신정 선생님(둘리)의 생일(양 7.17)이 다가옵니다.
축하해주세요!



소모임 사랑방

◆ 영아교육 소모임

4월 14일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원희, 이순, 박윤정, 강나라, 박은정 선생님 현재 5명 이고요.

고경애 선생님께서 지난(5월모임)모임에 참관하셨습니다.

- 1월1회 셋째주 월요일에 모임이 있고요.

1년 계획을 잡았는데 상반기에는 아이들(영아) 건강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영아 심리와 관련된 발달특성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론공부와 현장경험을 살려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5월 모임에서는 '감기'에 대해 다루었으며, 6월 모임은 '아토피'에 대해 논의합니다.

훗날 우리 소모임 교사들...

'영아'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있지는 않을까?

내심 기대해보며.. ^o^*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마을모임

'강강술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6/21(토) 모임은 쉽니다. 다음 모임은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 박물관 소모임

인천 시립 박물관(5/8)과 간송 미술관(근대회화명품전 : 5/18,25)을 다녀왔습니다. 6월 초엔 국립중앙박물관(통일신라전)도 보고 왔습니다.

6월29일(일)에 견학 예정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이들 동반 가능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문의- 011-9031-7228 류지민)

인천생협예술어린이집

♪ 6월 부모회때는 "아이들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 상반기 평가에 들어갔어요.

교사회에서는 차등 보육비에 대한 논의와 방과후 반 모임에서는 방과후 진로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여름캠프는 7월 15-16일에 있습니다.

♪ 토요일 격주 근무로 토요일에 있는 교육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구요, 하반기에도 여유롭게 교육연구와 재교육 활동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 여름휴가와 방학은 7월말부터 8월초까지 3일 있을 예정입니다.

새싹들의방 세쌍둥이 어린이집

♪ 새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영아반을 맡고 있는 고경애 선생님과 야간 보육을 하는 김정희 선생님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6월 1일부터 야간 보육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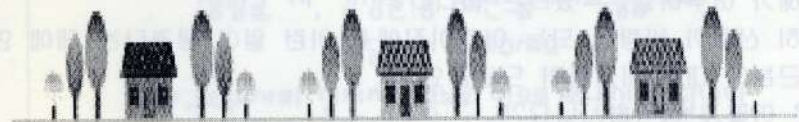
평일에는 10시까지, 토요일에는 7시까지 합니다.

♪ 6월 20일 부모회의 때는 '성교육' 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 어린이집에 냉장고와 에어컨 2대를 새로 구입 하였습니다.

♪ 대박이 터질란가? 아이들이 천천히 늘고 있습니다. 화이팅~



어린이집 사이버 중계 동의하십니까?

(한국보육교사회 www.kdta.or.kr)

얼마 전에 KBS에서 선진국 보육사례를 보여주는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하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사이버 유아원에 대해 소개하겠다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지요.

알고 보니 어린이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어린이집 생활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 중 한 분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고 한국 리포터는 역시 선진 시스템이라고 칭찬을 하더군요.

저는 여기까지 보다가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아이들의 하루생활이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카메라를 통해 인터넷 방송까지 하고 확인하면서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건지..

아이들이야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생활한다지만 성인인 보육교사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보육교사들은 매시간, 매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시스템이 보육교사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떨까요?

저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이걸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2,3년 전인가요?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의 노동통제를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된 것은 일터에서 직장인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문제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하루종일의 행동을 감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특히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데에 인간관계의 근본에 대해 서글픔이 드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주제 토론방에서 ID:푸른솔 님의 글입니다.)

풍

< 좋은 사람들 >

용혜원 님

언제나 마음에 따뜻하게 느껴지고
정감으로 가득 찬 좋은 사람들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가슴이 뭉클하도록
알아감에 감동을 준다

모두 다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자기들의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웃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진실을 보여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아픔을 감싸 주고 고통을 같이하는
풍요로운 사람들

세상은 이들 때문에 살아갈 맛이 난다
알아감의 어울림이 행복하다

회원 여러분! 글을 보내 주세요.

<강아지똥> 은

보육교사회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글로 만들어 가는 자리입니다.

생활글, 시, 감상문 등 어떤 글이어도 좋습니다.

부담없이 보내주세요.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홍보부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mail : snowrjm@hanmail.net



♡ 이현주(꽃별): <좋은 친구 만들기> 자신을 사랑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춰라. 사랑을 얻으려면 자존심을 버려라.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겸손하되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 되라. 상대의 장점을 칭찬한 다음 단점을 지적시켜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사귀려고 애쓰지마라.

좀 길지요? 우연히 읽은 책 중의 한 내용이에요. 짧은글 몇 줄이 며칠동안 생각을 곱씹게 하네요. 모두들 좋은 친구 만드세요~!

♡ 권오경(곰돌이푸): 날씨가 무더운 6월이네요.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런지, 다들 수고가 많으시고 힘드시죠~ 아자! 모두들 힘내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핫팅!!

♡ 김계임(나비): 똥 치우다가 전화 받았어요~ 나야 뭐.. 잘 지내요. 정신 없네요~ 어머어머! 나 좀 봐? 옷을 뒤집어 있었네?! 엄마들이 다 봤을 꺼 아냐~ 어머~ 난 몰라~~~

♡ 류신정(둘리): 아이들의 낮잠 자는 모습을 보며, 산책로에서 나비를 쫓느라 뛰는 아이들을 보며, "난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요즘은 '행복'이란 것이 아주 작은 것을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

♡ 박윤정: 날씨가 덥지요? 그래서 아이들 낮잠 시간을 이용하여 하드를 먹고 있어요. 몰래 먹어서 그런지 더 시원하고 맛이 있는 거 있죠? ^0^

♡ 최은하(코끼리): 교사와 학생을 오가면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보육교사회에선 잠시 잠수를 타신 듯 한데, 코끼리의 이쁜 미소가 보고싶어요~

♡ 이 순(우주): 슬퍼요! 나이를 느끼고 있어서 서글프구요. 머리를 보면서 아침에 일도 까먹고 과제중인데도 운동하는 것이 힘들어서 몸이 천근만근을 느낄 때 퍼져요. 나에게 위로와 격려해주는 사람들은 다 좋아!!

♡ 손수정(기린): 아이 낳고도 아가씨 때랑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기린이 씩씩한 아들 앞장세워 스승의 날 자축연에 갔었어요. 오랜만에 봐서 다들 반가웠는데, 장미선생님을 비롯한 높으신(?) 언니들을 못 봐서 많이 아쉬웠어요. 회원의 날 때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 박은아(개구리): 하루가 30시간쯤 되면 좀 덜 바쁠까? 정신 없이 살고 있어요. 영화도 보구 싶구, 요리도 배우구 싶구, 하고 싶은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에헤 으헤 으헤 으헤헤~!!! ♪ ♪ ♪

♡ 이인희(풀잎): 올~썸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제자리인 듯 답답하지만... 살다보면 노력한 것 만큼...아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리란 믿음으로 말이지요. ㅎㅎ

♡ **이은희(깨비)**: 겁 많고 성질 급한 깨비가 드디어 운전면허를 땀구요, 미술 치료1단계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나를 확인하는 과정과 남이 나를 일깨워주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며, 생각 많이 하며 살고 싶어요.

♡ **고정미(하마)**: 건강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육골죽을 한달 먹었고요, 생식을 한끼(아침) 먹고 있으며, 죽이되든 밥이되든 아들은 아빠에게 맡기고 새벽장을 설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연순언니 친정엄마가 다녀준 호박 90봉지 중 20봉지를 뺏아서 먹고 있습니다.

♡ **박은정(반디)**: 자유롭게 날고 싶은 아줌마! 그런데 아직은 날개가 좀 무겁네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넘칩니다. 나 좀 잡아줘요...

♡ **고경애(뽀뽀)**: 하하하~ 안녕하세요. 벌써 유월이네요. 와~ 신기하지요? 제가 어린이집 입사한지도 어언 한 달이 되었어요. 오래 되었지요. 햇병아리 새내기 선생님, 바로 저 뽀뽀.. 히히~ 이쁘게 봐주세요~ 랄랄랄~

♡ **이경미(하늘)**: 햇살에 반짝이는 초록의 은행잎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주말 아침입니다.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우리 보육교사회 선생님들 힘내세요, 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fighting!!

♡ **이숙희(나무)**: 요가를 다시 시작했구요, 불교강좌도 듣기 시작했어요. 한가롭게 살고 싶은데 자꾸 이런저런 욕심이 생기네요.

♡ **김원희(해님)**: 생각이 복잡하네요. 욕심이에요.

눈을 뜨면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바쁘게 살다보니 중요한 것을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어쩌면 바쁜 줄 착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 **이은경(사과)**: 아~ 몸 따로 마음 따로~~ 거기에 날씨 요녀석은 왜 이리도 따끈따끈(?)한지... 벌써 한 해의 반에 접어들었어요.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보자구요~!!!

♡ **류지민(무지개)**: 숙희언니랑 같이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2주째 접어 드는데 내 몸에 있는 근육들이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가 선생님이 하는 말인즉, "나이는 20대~ 몸은 60대~!" 잘 꼬이는 몸을 만드는 날까지 투쟁!

♡ **이은미**: 안 하던 풍물 공연 하려다 병들어 2주째 고생합니다. 에고에고~ 몸이 청춘을 넘어가네요...

♡ **강나라(꼬꼬)**: 너무 더워요. 땀에 흠뻑 젖어 살고 있어요. 바쁜 생활이지만 보람 느끼며 '과연 먼 훗날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며 웃음 짓곤 합니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알차게 살렵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 **위준임(스머프)**: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사과를 먹는 중이에요. 회원의 날에 또 놀러갈께요. 더운 여름 선생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 **이연순(은하수)**: 이쁜 딸 윤지하고 췌췌췌 하며 정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가 울 때면 맘을 내려놓고 또 내려 놓고 정말 도를 닦는 다니까요.

2003년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여름연수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 자리찾기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진단해보고,
보육교사들 스스로가 보육현장에서 주인으로 자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입니다.

● 프로그램 :

1강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보육교사의 역할

2강 WORKSHOP - 좋은 보육교사 되기 걸림돌 찾기

좋은 보육교사 되기 디딤돌 찾기

3강 보육교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 일시 : 2003년 7월12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인천 북구 도서관 1층 평생교육2실

● 강사 : 이윤경 (서울시 보육위원/한국보육교사회공동대표)

● 연수비 : 1만 2천원

● 접수 : 032) 529-0215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011-9031-7228 (담당자 : 류지민)

E-mail : ryu2@jinbo.net

● 사전입금 : 국민은행 647101-01-164293 류지민

주최 :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